

시직원의 코로나 19 감염에 대해

어제, 후지사와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본시 직원 1 명이, 코로나 19 에 감염되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검사결과가 판명된 후, 같은 날에 보건소를 일시 폐쇄한 후 관내의 소독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상담창구 등은 옥외에 텐트를 치고, 내소하시는 분들의 대응을 했습니다.

폐쇄 동안에 내소하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소독에 대해서는 어제 완료했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시 보건위생 업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현재, 감염예방에 필요한 손가락 소독액이 입수곤란한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미산성 전해수라는 제균효과가 있는 수용액을, 내일 4월 16일 부터 시민센터 · 공민관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19 의 감염확대 방지를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15일

후지사와의시장 